

코로나19 관련 주요 해외 동향(10월 5주차)

국가	주요 동향
미국	유통·소비 ○ 코로나19 사태로 LA항과 롱비치항에 수입 컨테이너 물량 급증 및 하역작업 지연에 따른 추가 경비(10~15%, 체선료/보관료 등) 부담으로 한국산 식품 소비가격 상승 전망 ○ 두 번째 아마존 후레쉬 그로서리 스토어가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40,000 스퀘어 사이즈로 오픈(슈퍼마켓뉴스, 10.23)
	바이어·수입 ○ (S사) 한국배를 미동부지역에 들여와 교포마켓을 중심으로 판매중이나, 최근 컨테이너 운임 증가 등으로 마진이 감소하여 과거처럼 대량으로 지속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○ (J사/M사/H사) 신고배 수입 중이나 한국 컨테이너선 확보 애로 및 미국 수입항 하역 지체로 당초 계획 대비 지연 ○ (Y사) 한국산 팡이버섯 리스테리아균 발생 이후 Import Alert # 99-23(물리적 확인과정 없이 제품 억류)이 적용되고 있어 물류 과정에서 최소 3주에서 한달간 컨테이너를 억류하면 제품 수입이 불가하여 현재는 미동부시장에서 중국산과 캐나다산으로 제품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임 ○ (L사) 코로나 발생이후 기능성 쌀, 곡물류 등에 대한 수요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, 미국산 이외 한국산 기능성 쌀, 곡물 수출업체를 물색중 ○ (H사/W사/O사) 코로나19 이후 홈룩 열풍에 힘입어 HMR, 스낵류 등 수입 확대 및 온라인몰 연계 판촉 추진
	코로나 관련 동향 ○ (10.26 11:00기준) 미국 확진자 8,639,900명, 사망자 225,247명 (존스 홉킨스 대학 발표 기준) * (10.23 기준) 뉴욕주 확진자 491,771명, 사망자 25,705명 * (10.23 기준) 뉴욕시 확진자 257,147명, 사망자 19,308명 * (10.23 기준) 뉴저지주 확진자 225,430명, 사망자 14,484명

□ 주요국 동향 및 조치사항

프랑스	○ 10.22(목) 일 확진자 4.2만 명(사망 165명)으로 사상최대, 누적 확진자 99.9만명 - 테스트 양성률은 14.3%, 지난 일주일 간 확진자 약 20만 명 ○ 10.24(토) 자정부터 38개 신규 데파르망 6주간 야간(21~6시) 통금 시행 - 총 54개 데파르망(파리 등 대도시 포함), 46백만 명에 영향 -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타격을 입는 영화, 공연산업에 115억 유로(약 1,500억원) 지원예정 ○ 지역간 이동제한은 없음
이탈리아	○ 10.22(목) 일 확진자 1.6만 명으로 사상최대, 누적 46,6만 명 ○ 북부 롬바르디 지역 23~5시 야간 통금 시행(10.22~11.13) 등 야간 봉쇄지역 확대 ○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, 컨퍼런스 및 각종 페스티벌 연기
기타국가	○ (네덜란드) 10.14(수)부터 최소 4주간 부분봉쇄 시행 - 식당 및 술집 폐쇄, 밤 8시 이후 주류판매 금지, 실내외 4인 이상 모임 금지 ○ (체코) 11.3(화)까지 재 봉쇄 시행 - 10월 1~2주 사이 인구 10만 명 당 감염자 581.3명, EU 국가 중 가장 높은 감염률을 보임 - 미필수 상업시설 제외 폐쇄, 휴교 - 업무, 필수 사유에 따른 가족방문, 식품/의약품, 운동 사유 이외 외출금지 ○ (아일랜드) 10.21(수) 자정부터 6주간 재 봉쇄 시행 - 거주지 반경 5km 내외 이동 가능 - 비필수 상업시설 폐쇄, 식당과 술집은 포장판매만 가능 - 결혼식은 25명, 장례식은 10명까지 참석가능 - 학교는 정상운영 ○ (덴마크) 식당, 술집, 클럽 10시까지 영업가능 ○ (벨기에) 식당, 술집 영업금지(10.19~11.15) 등 신규조치 - 식당은 포장판매만 22시까지 가능 - 20시 이후 주류 판매 금지, 야간 통금(12~5시) ○ (독일) 위험지역 식당, 술집 조기 영업종료(23시) - 4월 이후 처음으로 일 감염자 5,000명 이상 발생 ○ (루마니아) 국가 비상대기상태 11월 중순까지로 연장